

#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enting Beliefs and Maternal Gatekeeping for Korean and Chines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이영환<sup>1</sup> 김정희<sup>2</sup> 차평<sup>3</sup> 한지현<sup>4</sup>

Young Hwan Yee<sup>1</sup> Jeoung Hee Kim<sup>2</sup> Cheping<sup>3</sup> Ji Hyeon Han<sup>4</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ing beliefs and maternal gatekeeping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e participants were comprised of 459 Korean and Chinese couples with children whose ages ranged from 3 to 5 years old. The subjec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 BCPRS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 the PRI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 and the parenting involvement sub-scale of the productive father's parenting scal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ub-scale, Korean fathers showed a higher value compared to Chinese fathers. Second, Korean mothers had non-traditional parenting beliefs than the Chinese mothers had. Third, in regards to maternal gatekeeping, Chinese mothers more frequently controlled father's parenting than Korean mothers. Fourth, it was found that parenting beliefs and maternal gatekeeping in both countri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 <sup>1</sup> 제1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sup>2</sup> 공동저자

비전대학교 겸임교수

### <sup>3</sup> 공동저자

전북대학교대학원 아동가족전공  
석사

### <sup>4</sup>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e-mail : narahan1217@hanmail.net)

**key words**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parenting beliefs, maternal gatekeeping

## I. 서론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아버지라는 문화적 배경을 이어 온 한국과 중국에서는 최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대중적인 아버지 모습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같은 아버지, 양육적인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이영환, 2014)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능프로그램으로서 아빠들의 자녀양육 체험을 담고 있는 MBC의 <아빠 어디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1) KBS 2TV(2013년 11월~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TV(2013년 1월 ~2015년 1월)아빠 어디가 1, 2

<아빠>, <아빠가 돌아왔다>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이 되고 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한다는 남주의 여주내(男主外 女主內) 가족문화를 가진 중국에서도 아빠의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급격한 증가에 비교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이영환, 2012;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자녀 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여전히 높으며,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Allen과 Hawkins(1999)는 아버지의 부모정체감은 배우자, 즉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부모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아버지로서의 자녀양육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문지기(maternal gatekeeping)’개념을 제안하였다. 어머니의 문지기 개념은 ‘남성이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돌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적 노력을 방해하는 행동과 믿음의 총체(Allen & Hawkins, 1999)’이다. 어머니 문지기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가사 및 양육 참여를 차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머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 후 Walker와 McGraw(2000)는 어머니의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축진을 포함하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았으며, Van Egeren과 Hawkins(2004)는 어머니 문지기 측정에서 축진적이고 긍정적 차원인 ‘지지’와 제한적이고 부정적 차원인 ‘제지’의 두 차원의 지표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McBride 등(2005)을 비롯한 문지기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격려와 제지(또는 격려의 不在)는 연속선 상에서 서로 양 끝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여 단일척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격려와 제지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간주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호혜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간에 따른 변화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어머니의 문지기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uhlman & Pasley, 2013). Puhlman과 Pasley(2013)는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증가시키려는 어머니의 의도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격려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환영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분명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더 좋은 부모이며, 자신은 자녀에게 부적절하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양육에서 철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어머니의 격려 행동은 아버지로 하여금 양육참여를 증가시키거나 높은 수준의 양육참여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반면 제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차단하며 비난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문지기 행동 측정에 있어서 격려와 제지를 연속선상의 양 끝에 위치하는 일차원척도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에서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2) <아빠 어디가>의 중국판인 후난TV의 <아빠>는 2013년 하반기부터 방송되었으며 평균시청률 4.3%이었다. 40여개의 위성채널이 병존하는 중국에서 1%를 넘기는 예능프로그램이 연간 5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빠> 프로그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이민지, 2014. 2. 20). <수퍼맨이 돌아왔다>의 중국판인 저장TV <아빠가 돌아왔다> 역시 첫 방송이 시작되면서 방송 검색어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조선일보, 2014).

외국의 아버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어머니 문지기 척도의 개발·발전과 더불어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규명하고(Cannon, Schoppe-Sullivan, Mangelsdorf, Brown, & Sokolowski, 2008; Gaunt,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Schoppe-Sullivan, Brown, Cannon, Mangelsdorf, & Sokolowski, 2008)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더 나아가 이혼가정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Trinder, 2008) 등 다양한 가족을 배경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지영, 2008;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조숙인, 2010; 황윤하, 2015)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였다. 황윤하(2015)는 Van Egeren(2000)의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PRI)를 사용하여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지영(2008), 정미라 등(2015)과 조숙인(2010)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단일차원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적용시켜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특히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인식한 어머니 자신의 문지기 역할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상호관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는 아버지로 하여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아버지는 과거의 아버지보다 자녀의 삶을 조직화하고 계획하는데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아버지의 행동과 역할을 재형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삶도 바꾸게 한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5년 현재 43.9%(통계청, 2015)까지 증가하면서, 수세기동안 자녀의 일차 양육자였던 어머니는 양육 조력자로 머물렀던 아버지에게 적극적인 자녀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부모 공동양육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기대, 신념, 그리고 태도를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인식의 변화속에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부양자 역할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아버지 상과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부성역할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긴장을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2008; 나성은, 2014; 양소남, 2013; 전연우, 조희숙, 2013). 이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에 재조명과 개편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신념간의 조화여부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고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즉, 남성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 아버지로서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지각과 신념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김유경, 2002; 손영빈, 윤기영, 2011; 정한나, 2012; Freeman, Newland, & Coyl, 2008).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관이 높을수록(강관혜, 2000), 아버지 역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아버지가 더 많은 양육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Bride & Rane, 1997). Jacobs과 Kelley(2006)는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비전통적인 역할신념이 자녀양육 참여와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양육신념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는 몇 편 없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공동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되는 부모 양육신념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 연구변인들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권의 가치관과 관습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Peterson, Steinmetz, & Wilson, 2003). 문화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목표 설정에 더하여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내의 부모신념이나 가치관은 각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역사적으로 유교문화를 공유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9년부터 실시된 ‘한 자녀’ 정책으로 소위 ‘소황제’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성별에 상관없이 한명의 자녀만을 낳고 기르다보니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과보호 속에 성장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이전의 가부장적인 체제 하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던 모습에서 근대화를 거치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이상형으로 여기며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홍길희, 황정해, 2007),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마련도 미비한 실정이어서(정한나, 2012) 아버지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 이념에 따른 양육참여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의 남성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많이 분담한다고 주장한다(Chu, 1993; Tang & Parish, 2000; Yi, Lu, & Pan, 2000).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아버지들이 한국의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양육의 책임이 동등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 개방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점차 약화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문화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같은 유교문화권 하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살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참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이나 문지기역할 변인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문화적 차별성과 동질성을 발견하고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특수성을 밝혀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에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본 연구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비교한 연구들(송유진, 2005;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종휘, 2014; 채영란, 2015), 아버지의 양육역할지각을 비교한 연구(종휘, 2014)들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으며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비교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들 스스로 자녀양육 참여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중요한 조력자인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의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며 차단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된 부모의 자녀양육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의 기능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일한 유교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사회문화 및 지역적 차이를 지닌 양국의 자녀양육문화를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문화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과 부모의 자녀양육신념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중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국가와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은 국가와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한국과 중국 부모의 양육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행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의 중소도시인 전라북도 전주시와 중국의 중소도시인 하남성(河南省) 정주시(鄭州市)와 산둥성(山東省) 빈주시(濱州市)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중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600부(아버지용과 어머니용 각각 3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편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59쌍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만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459쌍으로 한국의 부모 238쌍(51%), 중국의 부모 221쌍(49%)이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4세( $SD = 4.53$ )이며, 교육수준은 한국 아버지의 67.8%(157명)와 중국 아버지의 59.7%(132명)이 대졸이며, 한국 아버지의 32.2%(75명)와 중국 아버지의 40.3%(89명)이 고졸이었다. 어머니 취업은 중국 87.8%(194명), 한국 68.7%(160명)로 중국이 한국보다 취업률 비율이 높았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 = 459)

구분		한국 n(%)	중국 n(%)	전체 n(%)	
유아	성별	남	125( 52.5)	109( 47.5)	234( 51.0)
		여	113( 47.5)	112( 50.7)	225( 49.0)
	연령	만 3세	22( 9.2)	44( 20.0)	66( 14.4)
만 4세		85( 35.7)	89( 40.5)	174( 38.0)	
만 5세		131( 55.1)	87( 39.5)	218( 47.6)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6( 2.6)	29( 13.1)	35( 7.7)
		31-35세	37( 15.9)	109( 49.3)	146( 32.2)
		36-40세	106( 45.5)	56( 25.3)	162( 35.7)
		41세 이상	84( 36.1)	27( 12.2)	111( 24.4)
	학력	고졸이하	75( 32.2)	89( 40.3)	164( 36.1)
대졸이상		158( 67.8)	132( 59.7)	290( 63.9)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24( 10.1)	56( 25.3)	80( 17.4)
		31-35세	78( 32.8)	102( 46.2)	180( 39.2)
		36-40세	93( 39.1)	50( 22.6)	143( 31.2)
		41세 이상	38( 16.0)	13( 5.9)	51( 11.1)
	학력	고졸이하	75( 31.5)	105( 47.5)	180( 39.2)
대졸이상		157( 66.0)	115( 52.0)	272( 59.3)	
취업상태	유	160( 68.7)	194( 87.8)	354( 78.0)	
	무	73( 31.3)	27( 12.2)	100( 22.0)	
전 체		238(100.0)	221(100.0)	459(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는데, 중국어 설문지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척도를 중국 빈주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 2인이 함께 번역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어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한 후 역번역 과정을 거쳐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 아버지 30명과 만 3~5세반을 맡고 있는 3명의 유치원 교사를 직접 만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 이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환, 조복희 그리고 이진숙(1999)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 중 양육참여 영역을 사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은 발달적 지지 11문항, 자녀 돌보기 및 지도 9문항,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6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적 지지는 자녀와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어 주고 친구를 사귀도록 기회를 주는 등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자녀 돌보기 및 지도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자녀와 함께 산책, 공원,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르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한국은 발달적 지지 Cronbach  $\alpha$ 는 .81, 자녀돌보기 및 지도 Cronbach  $\alpha$ 는 .84,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활동 Cronbach  $\alpha$ 는 .89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발달적 지지 Cronbach  $\alpha$ 는 .85, 자녀돌보기 및 지도 Cronbach  $\alpha$ 는 .86,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활동 Cronbach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2) 양육신념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Bonney와 Kelley(1996)의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BCPR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CPRS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감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29개의 문항(예; 자녀 훈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똑같이 지녀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신념이 부모로써 자녀양육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비전통적임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양육신념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 아버지의 Cronbach  $\alpha$ 는 .82, 한국 어머니의 Cronbach  $\alpha$ 는 .86, 중국 아버지의 Cronbach  $\alpha$ 는 .71, 중국 어머니의 Cronbach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

본 연구에서는 Van Egeren(200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 (PRI)척도의 35개 문항 중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격려를 측정하는 9개 문항(예; 나의 아내는 내가 얼마나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지에 대해 말해준다)과 비난을 측정하는 8개 문항(예; ‘당신은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 안보이세요?’라는 말을 한다) 등 모두 17개 문항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아내의 문지기행동을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격려 행동과 비난 행동을 1점(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점(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의 합이 어머니 문지기 행동의 하위 차원인 격려와 비난의 점수가 된다. Van Egeren(2000)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아내의 격려는 문을 여는 것이며(gate open), 비난은 문을 닫게(gate close)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격려가 높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양육을 개방하여 아버지의 참여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요구하는 것이며, 비난이 높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차단하고 제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서 문지기가 되는 셈이다. 이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Schoppe-Sullivan 등(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호혜성을 고려하여 어머니 문지기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자신의 격려와 비난의 정도를 응답하였으며, 아버지는 아내로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얼마나 격려 또는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격려와 비난 각각 한국은 Cronbach  $\alpha$ 는 .88과 .77, 중국은 Cronbach  $\alpha$ 가 .83과 .79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한국어와 중국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국의 중소도시인 전라북도 전주시와 중국의 중소도시인 하남성(河南省) 정주시(鄭州市)와 산둥성(山東省) 빈주시(濱州市)의 유아교육기관의 만 3, 4, 5세 반 유아를 통하여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작성하여 각각 아버지용 봉투와 어머니용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며, 질문지 작성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의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작성하도록 당부하는 협조문도 동봉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유아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으로 반송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600부(아버지용과 어머니용 각각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편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59쌍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자료가 되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양육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Two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육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행동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한국 아버지가 중국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발달적 지지와 돌보기 및 지도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한국 아버지가 중국 아버지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 2. 한국과 중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한국과 중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신념에서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와 국가(한국과 중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lic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부모와 국가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표 2> 한국 아버지와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차이 (N = 459)

양육참여	한국(n = 238) M(SD)	중국(n = 221) M(SD)	t
발달적 지지	3.51(.53)	3.44(.58)	1.41
하위요인 돌보기 및 지도	3.60(.56)	3.57(.62)	.66
함께하는 활동	3.73(.66)	3.45(.63)	4.52***
전체	3.59(.52)	3.48(.54)	2.18*

\* $p < .05$ , \*\*\* $p < .001$ .

<표 3> 국가와 부모에 따른 양육신념에 대한 분산분석 (N = 459)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국가	.34	1	.34	3.90*
부모	9.17	1	9.17	39.77***
국가*부모	7.83	1	7.83	88.67***
오차	40.18	4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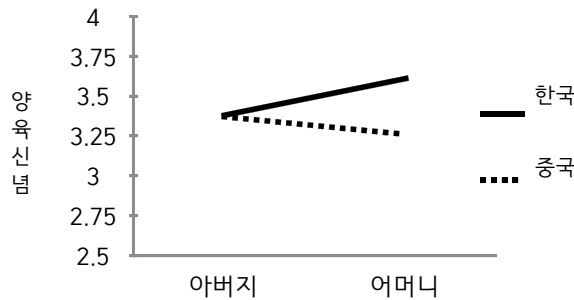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양육신념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 4>와 [그림 1]에서처럼 양육신념의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표 4>와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양육신념은 한국과 중국 두 문화 간에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어머니는 중국 어머니보다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볼 때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보다 더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비전통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나라 간에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의 부모는 중국의 부모보다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지만, 두 나라의 양육신념의 차이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버지, 한국 어머니, 중국 아버지, 중국 어머니 등 4개 집단 중에서 한국의 어머니는 가장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어머니는 가장 전통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양육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459)

구분	한국(n = 238) M(SD)	중국(n = 221) M(SD)	t
아버지	3.38(.41)	3.37(.39)	.73
어머니	3.61(.40)	3.26(.37)	9.61***
paired-t	8.03***	-4.01***	-

\*\*\* $p < .001$ .



(그림 1) 한국과 중국 부모의 양육신념

### 3. 한국과 중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어머니 문지기행동을 구성하는 두 차원, 즉 격려와 비난에 있어서 아버지가 지각한 아내(어머니)의 격려 및 비난 수준과 어머니가 응답한 남편(아버지)에 대한 격려 및 비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lic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격려와 비난 두 차원 모두에서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와 국가(한국과 중국)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문지기 행동의 하위차원인 격려와 비난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려와 비난의 평균 점수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국가와 부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6>에서 보듯이 격려 차원의 경우 중국 아버지와 한국 아버지 간의 차이가 없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의 어머니가 중국의 어머니보다 격려 점수가 높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표 5> 국가와 부모에 따른 격려와 비난에 대한 분산분석 (N =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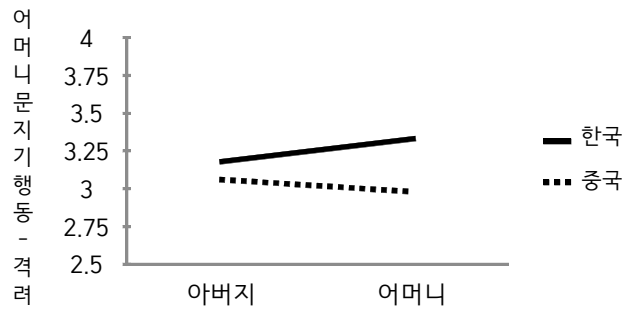
영역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격려	국가	.34	1	.34	3.90*
	부모	9.17	1	9.17	39.77***
	국가*부모	7.83	1	7.83	88.67***
	오차	40.18	455	-	-
비난	국가	.34	1	.34	3.90*
	부모	9.17	1	9.17	39.77***
	국가*부모	7.83	1	7.83	88.67***
	오차	40.18	455	-	-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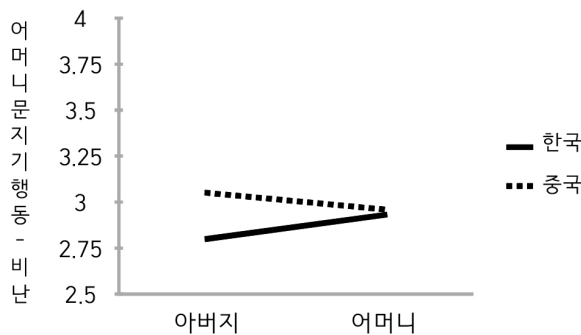
<표 6> 문지기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459)

구분	한국(n = 238)		중국(n = 221)		t
	M(SD)	M(SD)	M(SD)	M(SD)	
격려	어머니	3.33(.63)	2.98(.70)		6.57***
	아버지	3.18(.64)	3.06(.55)		1.66
	paired-t	3.34**	-1.73		-
비난	어머니	2.93(.59)	2.96(.53)		-.04
	아버지	2.80(.67)	3.05(.53)		-4.79***
	paired-t	2.83*	-2.37*		-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2) 부모가 지각한 어머니 문지기행동: 격려



(그림 3) 부모가 지각한 어머니 문지기행동: 비난

경우 어머니의 격려 점수가 아버지의 격려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아버지가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자녀양육 참여에 대해 격려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보다 어머니 자신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 차원을 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경우는 두 문화간에 차이가 없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 즉 중국의 아버지는 한국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더 자주 비난을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 문지기행동 중 비난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보면 어머니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비난 수준이 비슷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중국의 아버지가 한국의 아버지보다 제지의 수준이 높았다. 즉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비난하고 제지한다고 응답한 수준이 비슷하지만, 한국과 중국 아버지들은 아내의 비난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으며, 중국의 아버지가 한국의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에서 아내의 비난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아내의 비난보다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아내의 비난 수준이 더 낮은 반면 중국의 아버지들은 아내의 비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난받는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어머니의 문지기행동과 양육신념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어머니의 문지기행동과 양육신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듯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버지의 양육신념은 정적인 관계(한국  $r = .46, p < .001$  / 중국  $r = .42, p < .001$ )를 보여 아버지가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가지는 경우 어머니도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문지기행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문지기행동의 두 하위 요인인 격려와 비난의 차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이 정적 상관이 있었다(한국  $r = .47, .36 p < .001$  / 중국  $r = .43, .38 p < .001$ ). 즉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양육참여를 격려한다고 인식할수록 아내도 스스로 남편의 양육참여를 격려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난행동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어머니 문지기 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 비난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격려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가지는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더 많이 격려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r = .28, p < .001$  / 중국  $r = .42, p < .001$ ). 그러나 어머니가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가지는 경우 중국의 아버지는 배우자인 아내가 자신의 자녀양육참여를 더 많이 격려해준다고 지각하였지만( $r = .22, p < .01$ ) 한국의 아버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의 양육신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r = .27, .62 p < .001$  / 중국  $r = .31, .40 p < .001$ ).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문지기행동과의 관계에서는 격려행동에서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한국  $r = .47, .46 p < .001$  / 중국  $r = .33, .50 p < .001$ ).

부모의 양육신념 및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행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국가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09~.4, VIF(분산팽창계수)값은 1.10-1.52(10이하), TOL(공선성 허용도)은 .66-.91(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검정통계량도 1.984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 7> 부모의 양육신념과 어머니 문지기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상관관계 (N = 459)

구분	변인	1	2	3	4	5	6	7
한국 (n = 238)	양육신념	1.00						
	어 머 니 격려	.28***	1.00					
	비난	-.12	-.22**	1.00				
	양육신념	.46***	.33***	-.15*	1.00			
	아 버 지 격려	-.05	.47***	-.01	.22**	1.00		
	비난	-.08	-.11	.36***	-.12	-.08	1.00	
	아버지의 양육참여	.27***	.47***	-.03	.62***	.46***	-.07	1.00
중국 (n = 221)	양육신념	1.00						
	어 머 니 격려	.42***	1.00					
	비난	.08	-.31***	1.00				
	양육신념	.42***	.18**	.01	1.00			
	아 버 지 격려	.22**	.43***	-.16*	.31***	1.00		
	비난	-.02	.12	.38***	-.12	-.27***	1.00	
	아버지의 양육참여	.31***	.33***	.02	.40***	.50***	.05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문지기행동(격려, 비난)

<표 8> 부모의 양육신념과 어머니 문지기행동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중 비교 (N = 459)

독립변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한국(n = 238)		중국(n = 221)		
	B	$\beta$	B	$\beta$	
아버지의 양육신념	.63	.49***	.30	.22**	
어머니의 양육신념	.10	.07	.17	.12	
어머니 문지기 역할	격려	.04	.38***	.05	.41***
	비난	-.00	-.01	-.00	-.03
R <sup>2</sup>	.52		.33		
F	61.47***		26.01***		

\*\* $p < .01$ , \*\*\* $p < .001$ .

양육신념,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신념( $\beta = .49, p < .001$ )과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중 격려행동 ( $\beta = .38, p < .001$ )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2%였다. 중국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신념( $\beta = .22, p < .01$ )과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중 격려행동( $\beta = .41, p < .001$ )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3%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변인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격려의 문지기 역할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의 자녀양육신념 및 어머니의 문지기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양육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행동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문화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비교에서는 한국 아버지가 중국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세가지 하위영역 중 발달적 지지 영역과 돌보기 및 지도 영역에서는 두 나라 아버지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영역에서는 한국 아버지가 중국 아버지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한국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이기숙 등, 2008; 송유진, 2005; 종휘, 2014; 채영란, 2015)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적 지지나 함께하는 활동은 자녀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일어나는 활동들인데 반해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은 자녀와 산책을 하거나 공원이나 동물원, 박물관에 가기, 장난감 사기 등과 같은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자전거 타기, 공놀이와 같은 신체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한국 아버지가 비록 중국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참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자녀의 발달을 지지하거나 돌보는 일상적 양육활동 보다는 자녀와 놀이를 하거나 외출과 같은 주말 양육참여활동이 중점적임을 보여준다. 중국 아버지들의 참여율이 한국 아버지들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에도(송유진, 2005), 한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은 자녀양육 활동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하거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활동들이었다. 한국 아버지의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이기숙 등, 2008; 이영환, 2012)에서도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의 경우도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외출하는 활동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기저귀 갈아주기, 밥 먹이기, 재우기, 목욕시키기와 같은 일상적 돌봄은 거의 대부분 어머니의 몫이라고 보고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비해 발달적 지지나 자녀돌보기 활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이전 세대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머니가 전형적으로 자녀의 일상적 양육을 주로 제공하고 아버지는 자녀와의 놀이활동이나 여가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들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재정립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중국 아버지에 비해 한국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높게 보고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과 같은 사회제도에서 그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1996년 주5일 수업이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주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주5일 수업도 2012년에 전면시행되어 시기적으로 중국에 비해 늦었다. 제도의 시행이 20여년이 지나 정착기에 있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른 영향의 체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김유선(2011)

의 연구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증가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시행시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아버지에 비해 한국 아버지의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의 높은 보고는 제도 정책에 따른 체감율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제기하는 바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보다 더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비전통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 한국 어머니, 중국 아버지, 중국 어머니 등 4개 집단 중에서 한국의 어머니는 가장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어머니는 가장 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어서 두 나라 어머니들의 신념 차이가 한국과 중국 두 문화간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87.8%로 한국의 68.7%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어머니보다 전통적인 신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양육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한중일 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연구(이기숙 등, 2008)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기대가 중국 어머니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어머니에 비해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는 연구 시점과 샘플 집단의 특성 차이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014년 조사된 자료인데 비해, 이기숙 등(2008)의 연구는 2005년에 조사되어 연구 시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률을 보면 중국의 경우 87.8%, 89.11%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68.7%이고 선행연구는 49.4%로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한국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43.9%(통계청, 2015)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어머니의 집단이 취업모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어머니의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의 성향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한국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점점 늘면서 취업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가지기를 원하는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의 표집이 취업모에 다소 편향되어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비교 결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표집에 있어서 국가별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신념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아버지의 양육역할지각을 비교한 선행연구(종휘, 2014)에서도 하위요소 일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행동에서는 같은 하위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양육참여를 격려한다고 인식할수록 아내도 스스로 남편의 양육참여를 격려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난행동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같은 차원의 문지기행동에 있어서 부부 간의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황윤하, 2015; Altenburger, 2012; Schoppe-Sullivan et al.,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격려와 비난의 두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낮은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문

지기 행동이 아버지의 참여를 차단시키는 단일 차원에서 확장하여 Puhlman과 Pasley(2013)의 주장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인 격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차단하는 행동인 제지가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관련성에 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 더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대한 부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평가 결과, 격려 차원의 경우 한국의 부모에게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은 어머니의 격려점수가 아버지의 격려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 한국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 참여에 대해 격려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보다 어머니 자신이 배우자의 자녀양육참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 차원에서는 양국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의 비난에서 배우자가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각수준이 더 낮은 반면, 중국 아버지들은 배우자의 비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난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기보고와 아버지의 평가 간의 차이는 같은 문지기역할에 대한 평가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연구에서 아버지는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아버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양육참여가 더 높아지며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Pasley, Futris, & Skinner, 2002), 부부간의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 차이가 긍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효식, 윤혜옥, 연은모,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대한 부부간의 지각 차이는 양육참여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스스로 보고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가 경험한 문지기 역할을 비교·공유함으로써 지각차이를 확인하는 일은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기능적인 공동양육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어머니의 격려 문지기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비전통적인 양육신념을 가질 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격려할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양육신념에 있어서는 아버지 역할신념이 비전통적일수록,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Jacobs & Kelley,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실제 자녀양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치를 두는 역할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 신념이 아버지의 실제 양육참여행동을 높이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좋은 아버지상을 조사한 연구(송혜림, 2010)에 따르면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비전통적인 신념을 갖게 하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서는 격려와 비난의 두 차원 중 격려만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격려는 아버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난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Van Egeren & Hawkins(2004)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격려할수록 아버지가 보고한 자신의 양육참여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들(황윤하, 2015; Schoppe-Sullivan et al.,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차단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어머니의 심리적·물리적 지원 등의 조력은 실질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증가 뿐만 아니라(박익새, 2012),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정서통제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며(김은혜, 2009), 외현화 문제행동도 감소시키는 등(Shoppe-Sullivan, Magelsdorf, & Frosch, 2001) 자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머니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에서 만 3~5세 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문화간 차이를 알아보고 한국과 중국 유아기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격려행동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 설문지는 중국 유치원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았지만, 한국의 측정도구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대상자 표집에 있어서 연령의 경우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고르게 표집하지 못했고, 중국의 경우 워낙 넓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일부지역에 한정된 표집이어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학적 변인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한 폭넓은 표집을 통해 객관화를 보다 높이고 영아와 아동기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연령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변인들의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란혜 (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1(2), 119-135.
- 김유경 (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지각과 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선 (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0.

- 김은혜 (2009).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2008, pp. 115-11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30-40대 중간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루안 (2014). 중국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 (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송유진 (2005). 한국과 중국 도시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11-136.
- 양소남 (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민지 (2014. 2. 20). 중국판 ‘아빠 어디가’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뉴스엔미디어.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2200938542410](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2200938542410)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 이영환 (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이영환 (2014).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지영 (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연구보고 2006, pp. 29-52).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전연우, 조희숙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43-363.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 정한나 (2012). 아버지의 근무환경 및 역할신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14. 4. 25). 중국판 슈퍼맨이 돌아왔다, 첫 방송 시작..검색어 1위 달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5/201404250243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5/2014042502435.html)에서 2015년 6월 15일 인출

- 조숙인 (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종휘 (2014). 한-중 만 5세아 아버지의 양육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란 (2015, 4).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15년 춘계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어머니-아버지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통계청 (2015). **2015년 맞벌이 가구 현황**.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3/index.board?bmode=read&aSeq=354797](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3/index.board?bmode=read&aSeq=354797)에서 2016년 8월 1일 인출
- 홍길희, 황정해 (2007).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 301-317.
- 황윤하 (2015).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양육 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Altenburger, L. E. (2012). Maternal gatekeeping: Do they see it the way we do?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USA.
- Bonney, J. F., & Kelly, M. (1996). *Development of a measure assessing maternal and paternal beliefs regarding the parental role: The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Norfolk, VA: Old Dominion University Press.
- Cannon, E. A.,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Brown, G. L., & Sokolowski, M. S. (2008). Parent characteristics as antecedents of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ing behavior. *Family Process*, 47(4), 501-519.
- Chu, G. C. (1993). *Modernization versus revolution: cultural change in Korea and Chin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Freeman, H., Newland, L. A., & Coyl, D. D. (2008). Father beliefs as a mediator between contextual barriers and father involvement.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78(7), 803-819.
- Gaunt, R. (2008). Maternal gatekeep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3), 373-395.
- Jacobs, J. N., & Kelley, M. L. (2006). Predictor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in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athering*, 4(1), 23-47.
- McBride, B. A., & Rane, T. R. (1997). Role identity, role investments, and paternal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ograms for m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2),

- 173-198.
-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 (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 Pasley, K., Futris, T. G., & Skinner, M. L. (2002). Effects of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centrality on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30-138.
- Peterson, G. W., Steinmetz, S. K., & Wilson, S. M. (2003). Cultur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parent-youth relations. *Marriage and Family Review*, 35(3), 5-19.
- Puhlman, D. J., & Pasley, K. (2013). Rethinking maternal gatekeeping.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3), 176-193.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545.
- Tang, W., & Parish, W. L. (2000). *Chinese urban life under reform: the changing social contrac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nder, L. (2008). Maternal gate closing and gate opening in postdivorce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10), 1298-1324.
- Van Egeren, L. A. (2000). *The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USA.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Walker, A. J., & McGraw, L. A. (2000). Who is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563-569.
- Yi, C. C., Lu, Y. H., & Pan, Y.-K. (2000). Women's family status: A comparison of the family power structure in taiwan and China. In Harvey, C. D. H. (Ed.). (2000). *Walking a tightrope: meeting the challenges of work and family* (pp. 91-116). Burlington, Vermont: Ashgate.

논문투고: 16.08.15  
수정원고접수: 16.11.24  
최종게재결정: 16.12.14